

푸틴·김정은 평양회담...한·중은 서울서 고위급 안보대화

북러 관계 밀착 수위 끌어올리기 9년만의 한중 외교 차관급 회담 한반도 안정 중국 역할 촉구할 듯

18일 한반도에서는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 안보대화가 동시에 펼쳐지게 됐다. 평양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북러 밀착의 수위 끌어올리기를 도모하고, 이에 맞서 한중 차관급 안보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회담해 경제에 나서는 외교전 양상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불붙은 북-러 밀착 기조에 한중 고위급 소통 재확성이 일종의 '반작용' 움직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최근의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북한은 한국과 점차 가까워지는 중국에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찾았을 때 "정탁과 구결외교" (북한 외무성 부상 담화)라며 견제했고, 같은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에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표현에는 "난폭한

내정간섭"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 방북이 이뤄지지만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연기되지 않고, 장쑤성 당시기방한도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것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견제구'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외교계에서 나온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3일 북러 정상 회담에 대해 '원칙적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말'에 그칠 뿐 북러정상회담 한가운데서도 한중 외교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행동'에서 진영주의에 부이지 않으려는 진정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외교안보대화에서) 한반도 안정·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로 북한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북중러 3자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외교안보대화 개최로) 우회적으로 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9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3-2015년 국장급으로 치러졌다가 차관급으로 격상돼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양국관계를 비롯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 의제가 폭 넓게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와 한중 밀착하고 도발이 이어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촉구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중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 등 최근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양측 입장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사안에 대해서 중국이 그간 보여온 원론적 입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이번 행사는 한중간 오해를 막을 수 있는 고위급 소통 채널을 재확성화하고 대화 동력을 살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외교계 평가다.

한국으로선 외교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북중러의 '틈'을 더 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은 최근 '푸틴 방북의 의미 및 전략적 고려사항' 제하 이슈브리프(김성배 안보전략연구소·김종원 북한연구소·장세호 지역전략연구소)에서 푸틴 방북 이후 한국 대응방안에 대해 "특히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를 계기로 중러북 밀착에서 중국을 이격시키는 것이 전략적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백두산 천지의 북한군 18일(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9년만에 서울에서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내에서 외교전이 펼쳐진다. 사진은 최근 백두산 천지의 북한령인 동피정 지역에 모여 있는 북한군의 모습. /백두산=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예방수칙 당부

장티푸스·비브리오패혈증 등 기온 상승·야외활동 6~8월 집중 음식 익혀먹기·손 씻기 등 준수

광주시는 17일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관염(살모넬라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 비브리오패혈증 등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지역 평균 폭염 일수는 17.6일로, 30년(1991~2020년) 평균 폭염 일수 15.6일보다 증가하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중 주로 발생하는 장관 감염증(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장병원성대장균)의 2023년 광주지역 발생 현황을 보면 총 493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239건(48%)은 주로 6~8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광주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을 위해 시·자치구별 비상방역체계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으면 음식 준비나 조리하지 않기, 갈·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고 생산·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손속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이 증가한 만큼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304건 법률 상담

금융·주거·심리상담 등 광주시는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총 304건의 법률·금융 상담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광산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업체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자 현장 창구를 운영했다.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상담소에는 지난 12~14일 사흘간 총 143명이 방문해 법률상

담 222건·금융상담 59건·주거상담 20건·심리상담 3건 등을 했다.

세입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절차·금융 및 긴급 주거 지원·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등을 문의했다.

정현은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찾아가는 상담 창구를 추가로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

전남도, 수산양식 피해 예방 달라진 어업재해보험 홍보·가입 독려

전남도가 태풍·적조·이상수온 등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어업재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당장, 4월부터 재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게 책정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바뀌어 양식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어업인들은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 양식물의 크기 등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아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절차를 밟다가 주의보로 바뀌는 발령 기간이 짧아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어민들의 사례를 고려해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수온 28°C 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던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올해부터는 '수온 25°C 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완화돼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양식장 현장점검 시 어업인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항상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에 대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결혼성비 불균형 심각...미혼남이 20% 더 많아

남아선호사상 영향 과거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해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0%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449호)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 (조성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많은 미혼 남녀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미혼 남성은 남게 되는 것이다.

미혼 남성 불균형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했다. 미혼 남성 과잉 비율은 서울이 2.5% 수준이었고 부산도 16.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경북(34.9%), 경남(33.2%), 충북

(31.7%)은 30%를 넘었다.

결혼성비 불균형은 남녀 간 미혼율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2020년 시점에서 1985년생(당시 35세)의 미혼율은 남성이 46.5%로 여성(29.1%)보다 훨씬 높았다.

이처럼 미혼 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큰 것은 남아 출생이 여아 출생보다 많은 상황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생성비(출생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상황)는 1970년대부터 자연성비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까지 높은 수준이었다가 2007년부터 자연성비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결혼성비 불균형이 1990년대 초반 나타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악화됐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광역시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입구 공명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회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미래도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미래도건설(이하 '을')은 2024년 6월 17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은 그 재산(영업)의 일부(토목건축사업 부문)를 분할 하여 그 분할된 부분의 "을"이 합병 하고, "을"은 존속하며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 의무(토목건축사업 부문)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개인 주주계좌는 동기간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갑" 미래도이엔씨 주식회사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충의로 36
대표이사 김경남
"을" 주식회사 미래도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대표이사 정경열, 박윤하

상속한정승인심판정정공고

- 피상속인: 망 정례(370420-2XXXXXX)
- 최후주소: 광주 남구 도금마을길 78-16(도금동)
- 피상속인 망 정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정정을 광주 가정법원 2024즈기3201호로 신청하여 2024년 6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채권선고를 하시거나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18일
*사건 2024-단3566 상속한정승인심판에 대한 상속재산목록 결정
• 상속인: 이동일(340307-1XXXXXX)
광주 남구 도금마을길 78-16(도금동)
• 신고기간: 2024. 6. 18. ~ 2024. 8. 28.
• 채권선고처: 상속인 이동일의 주소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비약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지분, 물건 바로 삽니다

010-9552-7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